

피심문자 위에 군림하는 절대자가 되라

미국 CIA의 고문기술 교본이 폭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폭로된 교본은 1980년대 중반 중남미 지역의 비밀경찰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교본에는 비역압적 방법에서 역압적 방법에 이르기까지 온갖 심문 기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다. CIA가 세계 각 지역의 비밀 경찰·정보 요원들을 교육시키고, 그들 기관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국내의 정보기관에도 이와 비슷한 고문 교본이 전수되고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 글은 『볼티모어 선』(Baltimore Sun) 1월 27일자와 3월 7일자,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 1월 28일자,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 2월 7일자 등에 폭로되었던 CIA의 고문 교본에 대한 기사를 번역하고, 간단한 해설을 붙인 것이다. 이번에 폭로된 고문 교본은 원래 1백28쪽짜리 문서였으나 이쉽게도 인터넷 상에서 전문을 입수할 수는 없었다. 더 관심 있는 독자들은 인터넷 주소 <http://www.sunsport.net/sunsport/crabhouse/channel/cia/testcia.html>로 접속해보기 바란다. 그곳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실려 있다.

번역/월간 『말』 편집국

고문 교본이 공개된 경위

1980년대에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정부 전복 혐의 자들에 대해 사용되었던 고문방법이 상세하게 기술된 CIA 훈련교본이 새롭게 비밀 분류에서 해제되었다.

「인간의 기략(機略) 개발 매뉴얼—1983」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지난 94년 5월에 미국의 일간지 『볼티모어 선』이 정보자유법원에 의거해 청구한 결과로 97년 1월 24일에 공개된 것이다. 또 CIA는 「쿠바르크(KUBARK) 대적침보 심문술—1963년 7월」이라는 제목의 베트남전쟁 시기의 교본도 공개했다. 이 교본 역시도 고문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며, 83년 매뉴얼의 지적 원천이라고 생각된다.

『볼티모어 선』은 80년대에 CIA에 의해 훈련받은 온두라스의 316부대라는 한 군부 조직이 자행한 납치,

고문, 살상행위를 추적조사하는 연장선상에서 지난 94년에 이 문건의 공개를 요구했었다. CIA는 『볼티모어 선』 측으로부터 이 문건의 보존 여부에 관한 소송 위협을 받은 후야 비로소, 전달 경로를 삭제한 채, 제출한 것이다.

다음은 83년 교본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들이다.

전반적인 심문 수법에 대해서

‘심문’ 실은 ‘심문관’과 피심문자가 접전하는 전쟁터이다. 하지만, ‘심문관’은 피심문자와 그의 주변 상황을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 심문관은 피심문자로 하여금 구금 기간을 통털어 심문관이 그의 궁극적인 운명을 통제하고 있으며, 자신의 절대적인 협조가 생존에 필수적임을 확신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여기서 ‘피심문자’란 심문하는 기관 측에서 볼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이라고 정의된다.



CIA의 고문 교본으로 교육받은 온두라스 316부대의 만행 발굴 현장.

심문관은 피심문자의 환경을 불쾌하고 견디기 힘들게 만듦으로써 그의 상황을 교묘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피심문자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발견해야 한다. 피심문자가 바퀴벌레를 싫어한다면, 심문실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닐 때 그는 더욱 협조적이 될 수 있다. 심문실은 창과 번기가 없어야 하고, 어둡고 방음 장치가 된 곳이 좋다.

심문관은 피심문자의 인척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위협에 처해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족들의 편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심문술에는 비강압적 수법과 강압적 수법이 있다.

대부분의 비강압적 심문술의 효율성은 피심문자들의 불안 효과에 따라 달라진다. 피심문자로 전락한 상황은 그 자체가 당사자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겐 고통을 준다. 피심문자에게 이런 효과를 강화하고, 세상에서의 자기 자신의 이미지뿐 아니라 친숙한 세계가 이미 과거가 되었다는 감정을 격발시킴으로써 심리적 충격을 맞보여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심문자는 여러가지 방법을 써서 전지전능하다는 인상

을 심어주고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심문자는 피심문자에게 그의 이름이 적힌 두툽한 동태 보고서 파일을 보여줄 수 있다. 비록 거의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백지에 불과한 파일이지만, 익숙한 듯이 피심문자의 배경을 언급한다면, 일부 피심문자들은 모든 것이 파악되어 있고 저항은 무의미하다고 확신하게 된다.

육체적 고문은 권장되지 않는다. 심문관은 보다 정교한 방법을 써서 피심문자를 겁먹게 해야 한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강압적 수법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법을 익히기를 원한다. 비강압적 조치들에 대한 저항 훈련을 받은 용의자들에게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강압적 수법으로는 체포, 구금, 감각 능력의 박탈, 협박과 공포감 조성, 신경쇄약 유발, 고통주기, 최면술, 약물 투여 등이 있다.

만약 한가지 또는 두가지 이상의 강압적 수법을 혼합해서 사용할 것이라면, 각 개인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해서 선택하고 그의 성격에 맞는 것으로 주의깊게

풀라야 한다. 강압이 가져오는 혼란 영향은 퇴행이다. 피심문자는 죄를 지었다는 감정을 경험하고 있을 터인데, 강압적 수법은 이런 감정을 강화시키는데 대체로 효과적이다. 피심문자의 신중한 방어력은 산산히 부서지면서 갈수록 더 어린아이인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피심문자는 죄



CIA구관 바닥에 새겨진 CIA문양.

를 지었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며, 이런 감정은 퇴보적 행동을 촉진시킨다.

'비강압적' 심문

비강압적 수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반은 멍청이'

피심문자가 소속된 조직을 형편없는 곳이라고 헐뜯는다. 적대감을 보이는 피심문자에게 너희가 말을 맞추어 놓은 것은 잘못 짜여졌고, 너희 조직의 다른 부서에서 서투른 솜씨로 망쳐졌으며, 조직원들의 안위 여부를 무시하는 것은 다른 조직들에선 흔하다. 흔한 일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문자는 행동대원에게 너의 과거 조직이 아니라 바로 심문관 자신이 너를 이해하고 너의 생활을 보살펴 줄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세뇌시킨다.

'얼간이와 관관한 놈'

이 수법은 '좋은 경찰 대 나쁜 경찰' 수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연기술은 여성, 10대, 겁이 많은 성인남성들에게 잘 먹힌다. 혐상국은 조사관은 피심문자들 사이에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랄같은 놈으로 회자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 그가 장광설을 늘어놓는 도중에 친절하며 과묵해보이는 조사관이 말문을 끊는다. "잠깐만, 짐 좀 쉬지." 혐상국은 조사관은 뒤로 물러나며 소리를 질러댄다.

"입닥쳐! 이것들을

손봐주고 있는 중이야. 나는 전에도 이런 인간 쓰레기들을 작살냈던 적이 있어. 이것들을 작살내서 입을 열게 할거야." 등 뒤로 문이 팡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두 번째 조사관은 피심문자에게 자신이 얼마나 미안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저런 인간하고 같이 일하는 것을 얼마나 혐오하고 있는지를 말한다. 그러고는 피심문자가 어떻게 해야 저런 짐승이 조용해지며, 그때 당신은 당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설득을 한다.

'스피노자와 모티머 스너드'

이는 한층 더 심오하다. 이 수법은 급수가 낮은 공작원들에게 사용하는데, 잘 아는 사실들이라도 제대로 털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심을 분쇄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할 일급 비밀을 털어놓으라고 조여대는 것이다.

피심문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들에 대한 계속적인 추궁은 보다 낮은 수준의 정보를 뽑아내기 위한 길을 닦는 작업일 수 있다. 피심문자들을 KGB의 수법으로 달달한다. 자신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불평을 하면, 너는 알고 있고, 알았어야만 했고, 너희 조직에서 가장 우둔한 자자들조차 알고 있다고 찔러맞게

애매모호한 질문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비논리적인 심문이 날마다 이어진다. 그럼 피심문자는 현 상황의 의미를 깨달아보려고 시도하다가,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게 된다. 이제 그는 자신을 몰아세우는 실없는 소리들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중대한 자백을 하거나, 어떤 경우엔 자신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싶어하게 된다.

면박을 준다. 공산주의 국가의 조사관들은 징벌과 병행해서 이런 기법을 미군 전쟁포로들을 대상으로 써먹었다. 상당수의 미국인 포로들은 “그가 마침내 내가 답변할 수 있는 사

항을 물었을 때 나는 아주 커다란 안도감을 맛보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에 와서는 이상해 보인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지만, 나는 그들이 내가 어느 정도 아는 것으로 주제를 바꿨을 때 전적으로 감사해하지 않았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수법은 친숙한 것들을 박탈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불가사의하고 섬뜩한 것으로 대체하는 수법이다. 애매모호한 질문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비논리적인 심문이 날마다 이어진다. 그럼 피심문자는 현상황의 의미를 깨달아보려고 시도하다가,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게 된다. 이제 그는 자신을 몰아세우는 실없는 소리들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중대한 자백을 하거나, 어떤 경우엔 자신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싶어하게 된다.

만약에 다른 모든 수법이 실패하게 되면, 폭력과 다른 강제적 방법이 선택사항이다.

저항적인 피심문자들에게 대한 강압적인 심문술

고통 가하기 또는 그 위협

고통을 가하겠다고 위협을 주는 것은 직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보다 한층 더 심하게 고통에 대한 공포감을 유발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에 대한 자신

E. COERCIVE TECHNIQUES ~~FORMING~~ REQUIRE PRIOR ~~APPROVAL~~ CONSTITUTE AN IMPROPER AND VIOLATE POLICY.

공개된 고문교본중 일부분. CIA의 훈련 방식에 대한 미 의회의 조사가 있을 후 당초의 교본을 수정 가필한 모습이 보인다.

들의 인내력을 과소평가한다. 자신의 외부로부터 고통이 가해지게 될 때 그의 반항심은 강화될 수 있다. 반면에 자기가 스스로 가해서 느끼는 고통은 그의 저항심을 서서히 약화시킬 개연성이 크다.

예를 들면, 그를 장시간 동안 똑바로 서 있게 하거나 등이 없는 의자에 앉아있도록 강제하면, 고통의 직접 원인은 ‘심문자’가 아니라 피심문자 자신이 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피심문자의 내면에 있는 저항의지가 고갈되는 경향이 있다.

두려움의 유발

강한 두려움은 죄인의 저항의지를 붕괴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이 과도하게 지속된다면, 피심문자는 자극에 반응하기 어려운 방어적 무감각 상태로 빠지게 될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퇴행이 일어날 경우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한다.

자백 얻기

일단 한번 자백을 받았으면, 피심문자가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압박의 수위를 충분히 높인다. 피심문자에게는 그의 협조가 지속되는 한 친절한 대접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줄 필요가 있다.

단독 구금과 자극 차단

고통을 가하겠다고 위협을 주는 것은 직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보다 한층 더 심하게 고통에 대한 공포감을 유발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에 대한 자신들의 인내력을 과소평가한다. 자신의 외부로부터 고통이 가해지게 될 때 그의 반항심은 강화될 수 있다. 반면에, 자기가 스스로 가해서 느끼는 고통은 그의 저항심을 서서히 약화시킬 개연성이 크다.

피심문자의 감각에 가해지는 자극을 박탈하면 긴장과 불안을 유발한다. 이런 박탈이 완벽하면 할수록, 피심문자는 보다 단시간 안에 보다 깊숙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시야를 차단하는 복면을 쓴 채로 수면에 떠 있기를 자원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실험 결과를 인용하겠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숨소리와 수도관에서 나오는 희미한 소리만을 들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대부분의 피실험자들의 긴장과 불안은 거의 인내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되었다.

최면 요법과 약물 투여

숨겨놓은 기계를 이용해서 '최면적 상황'을 만들고, 피심문자에게는 자신이 약물을 투여당했다고 확신이 들도록 하는 방법을 써라. 이같이 피심문자에게 제공되는 가짜약(placebo)은 이제 자신은 약물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자백 행위를 비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해줄 것이다.

체포

가장 효과적인 체포방법은 허를 찌르는 것인데, 이는 극도의 정신적인 불쾌감을 주게 된다. 체포하기에 이상적인 시간은 이른 아침 무렵이다. 이 시간대에 체포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용의자들은 강한 충격과 불안정감, 심리적 긴장감을 맛보게 되며, 대부분 상황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감금 장소

죄수가 수용되는 방은 무거운 철문을 갖출 필요가 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피심문자에게 자신은 세상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강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 피심문자는 긴장을 풀거나 충격에서 헤어나기가 힘들어진다. 죄수는 눈을 가

리고, 발가벗긴 채 신체의 모든 구멍까지 철저한 의학적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교본을 수정한 CIA

당초 레이건 정부의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반공산주의 성전이 절정에 이르렀던 83년에 작성된 이 교본은 84년에서 85년 사이에 미국 의회에서 라틴아메리카 비밀 경찰들을 대상으로 한 CIA의 훈련 방식에 대해 조사가 행해지고, CIA의 대 니카라과 공작이 폭로되면서 여러 군데 수정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것에는 이런 수정 가필된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수정된 내용들은 CIA는 폭력의 사용이나 정신적인 고문을 가하는 조치를 반대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83년 판본에는 "비록 우리가 강압적 수법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당신들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법을 익히기를 원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던 부분이 "대부분의 강압적 수법들은 부적절하며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바뀌었다. "심문관은 피심문자로 하여금 구금 기간을 통털어 심문관이 그의 궁극적인 운명을 통제하고 있으며, 자신의 절대적인 협조가 생존에 필수적임을 확신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는 표현은 "고문을 가하는 것은 조직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자, 고문을 신속하고 간단하게 자백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의존하는 사람마저 망쳐버린다"로 바뀌었다.

이 교본이 공개된 후 논쟁을 요구받은 CIA의 대변인 마크 멘스필드는 CIA는 85년부터 "심문과정을 돕는 데 이용하는 모든 종류의 비인간적인 수법"들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환기시켰다. "인권 원칙에 대한 준수는 교육과정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본질적"이라는 것이다. □